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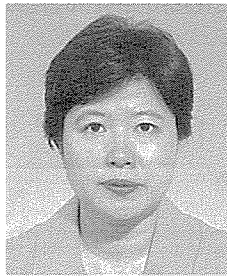
을속도를 지나며 ...

## “철새가 우리를 밥먹여 줘니까”

필자는 얼마 전 김해에 있는 은하사로 동료교수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러 갔다. 이 절은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를 찍은 곳이라서 영화 개봉 후 유명해졌다고 한다. 뒤에 산이 아담하게 병풍처럼 둘러쳐져서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 학교 안에 사진찍는 동호회가 있어 같이 참가해 본 게 이번이 세 번째이다. 다대포와 태종대, 그리고 김해, 모두 부산에 있는 명승지들이고 여러번 가본 곳이지만, 멋있는 사진작가 최선생님에게서 사진찍기를 배우며 감상하니, 그 경치들은 낯익은 것이 아니라 처음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앵글에 따라 경치가 다르게 보이는 것은 얼마나 신기한 경험인가! 밀물과 썰물을 생생하게 맞본 다대포의 낙조찍기는 정말 기가 막히게 신비로운 경험이었고, 태종대 자갈마당도 그야말로 새로웠다.

### 주택가로 변신한 에덴공원

을속도를 지나가며 과거에 최선생님이 을속도 근처의 맑은 물 속에서 잡아먹던 백합조개 이야기를 하시자, 나 역시 옛날 생각이 난다. 대학 다니던 76년과 77년, 을속도 근처에 자주 왔고 여기 에덴공원이라는 산책하기 좋은 넓은 장소가 있었다. 한 주먹 만큼



陳敬年  
(부경대학교 교수)

만 공원으로 남고 지금은 모두 주택가로 변하고 말았지만... 국민학교 시절 나와 가장 친한 단짝이 엄궁에 살았기 때문에 방학이 되어 부산으로 내려오면 어김없이 그 애를 만나곤 했다. 지금의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를 지나 그 애를 만나러 달려가며 버스 안에서 길게 펼쳐진 낙동강의 모습을 바라보기도 했고, 에덴공원에 있던 찻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밀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으며, 어느 때인가 낙동강 위에서 작은 배를 타보기도 했다. 그것은 재첩을 잡던 배였는가? 을속도 근처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유명한 삼각주 지역이라 철새 도래지로도 유명했고, 재첩이 많이 나던 곳이었다.

그리고 이 곳의 낙조는 대한 8경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경치로 손꼽혔다. 그 시절 이 주변은 얼마나 아름다웠던

가! 여고 3학년이던 1975년 대신동에 있던 부산여고가 승학산 아래 현대식 건물로 옮겨가자, 거기서 내려다보던 낙동강 위의 낙조가 너무나 아름다워 가슴이 설레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대학 4학년이 되던 79년 초 겨울엔 남자친구와 캔버스를 매고 을속도 안으로 들어가 그 유명한 갈대밭을 그리기도 했다. 나의 그림솜씨야 보잘 것 없었지만, 그림을 빼어나게 잘 그린 아버지를 둔 덕에 그림그리는 것을 싫어하진 않았다. 아! 그 때 우리는 아름다운 경치에 둘러싸여 얼마나 행복했던가! 잊고 있던 그 행복한 미소가 갑자기 눈 앞에 선하게 떠오른다. 그 때의 사진은 어디로 갔을까? 너무 광활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두장을 붙여 한장으로 만들었던 을속도 갈대밭의 그 긴 사진은...

그 당시엔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1984년 수산대학교의 교수로 부임할 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그 후 나의 부모님 또한 을속도가 바로 건너보이는 에덴공원 자리에서 사시게 될 줄이야. 그 해 봄 어느 날 출근버스 안에서 이런 뉴스를 들었다. 을속도에 독을 쌓아 홍수가 범람하면 물에 잠겨 못쓰게 되는 땅에 아파트를 짓기로 한다고 발표하자, 환경보호단체들이 세계적인



**부산시가 80년대 철새 도래지 을숙도에 독을 쌓아 홍수가 범람하면  
물에 잠겨 못쓰는 땅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하자  
그 당시 환경단체들이 반대에 나섰다. 그러자 당시 부산시장은  
“철새가 우리를 밥먹여 줍니까” 라고 말했다는데 ...**

철새 도래지인 을숙도를 보호하려면 하구언담을 쌓지 말라고 반대했다. 그러자 당시 부산시장이 “철새가 우리를 밥먹여 줍니까?” 라고 말했다고 뉴스에서 방송했다. 그 말을 듣던 난 ‘아! 시장님이 저렇게 무지한 말씀을 하시다니...’ 이런 생각을 하며 얼마나 놀랐던지!

언제나 환경보호의 논리와 개발논리는 상충된다. 그러나 지금 하구언 근처에서 재첩은 살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고, 철새들도 창원의 주남저수지로 모두 이사해 버렸다. 이 근처 재첩국집들은 하동이나 중국에서 나는 재첩을 가지고 식당을 운영한다고 한다.

**철새는 주남저수지로 떠나고**

그러나 철새가 살지 못하는 곳에서는 인간도 살 수 없는 것이다.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인 동물에 불과하다. 더구나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연약한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바늘에만 찔려도 아프고, 발바닥의 작은 종기에도 걸음을 걸을 수 없으며, 담배 연기만 많이 맡아도 감기, 폐암 등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는가 말이다. 나쁜 공기와 나쁜 물로써는 인간에게도 죽음이 닥칠 뿐이다.

을숙도 근처의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명지대교 건설로 이어지면서 환경단체와 부산시 간에 의견이 대립되어 몇년간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나의 부모님은 그 후 1986년부터 15년이나 에덴공원 자리에서 살았다. 그곳의 수질은 정말 나빴고 사상과 장립공단에서 날아오는 매연으로 인해 숨쉬기도 힘들었으며, 95년과 96년 사이 부산 전체의 생활쓰레기까지 그 곳에 내다버리는 바람에 필자가 하단에서 2년간 산 시절은 정말 괴로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 많던 철새는 더러운 물을 피해 주남저수지로 모두 이사했건만, 부모님은 끝끝내 거기서 탈출하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내 마음을 너무 너무 아프게 한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좋은 환경으로 부모님을 모시지 못한 불효를! 제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조금도 갚지 못한 죄 잘못을! 철새들도 용서해주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명예나 아름다움보다 돈을 더 좇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95년 프랑스 정부의 초청으로 프랑스 니스에 연수간 적이 있는데, 니스 해변의 아름다움과 깨끗함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모래 대신 이런 저런 모

양의 색깔있는 돌맹이가 늘어져 있는 것으로 유명한 해변에 새벽마다 청소차가 와서 물로 깨끗이 청소하고 가고, 나폴레옹의 고향인 코르시카 섬에 가는 배편을 알아보느라 선창가에 갔더니 배들이 모두 하얀 색으로 눈부시게 깔끔한 모습으로 먼지 한톨 없이 멋지게 서있어, ‘선창가가 이렇게 깨끗할 수도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란 기억이 난다.

특히 피닉스라는 식물원에선 나비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알과 고치들을 유리통 안에 넣어둔 어느 방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나비들이 눈 앞에서 훨훨 날아다니지 않는가! 굉장히 큰 방이었고 천장이 아주 높아 예쁜 나비들이 아무런 구속없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아! 자유! 그 고귀한 자유를 몸으로 실감한 순간, 이런 방을 만들 생각을 하다니! 프랑스인의 자유로운 독창성에 난 감탄하고 말았다. 그것은 거의 환상적인 느낌을 주었다.

아, 우리도 언제 이런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청결하고 아름다운 도시는 선진국의 바로미터이다.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며, 행정정책을 담당한 분들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 ⑤7